춤으로 그린 49일…죽음 통해 삶 되짚다

국립무용단 신작 공연 '사자의 서'
4월 25~27일 국립극장서 공연
망자의 49일간 여정 단계적 표현
"죽음만이 아닌 삶에 관한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전속 국립무용단이 4월 25~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신작 '사자의 서'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종덕 예술감독 및 단장이 취임 후 처음 선보이는 안무작이다.

'사자의 서'는 인간이 죽은 뒤 사후세계에서 헤매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지침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대표적인 불교 경전으로 꼽힌다. 국립무용단은 죽음 후 망자가 49일 동안 영혼이 이승에 머물며 느끼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의 과정에서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저승으로 건너간다는 내용을 그려낼 계획이다.

김종덕 감독은 4월 3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작품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닌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서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삶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사와 감정을 명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죽음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라 보며 인간 생애를 담담하게 관조하려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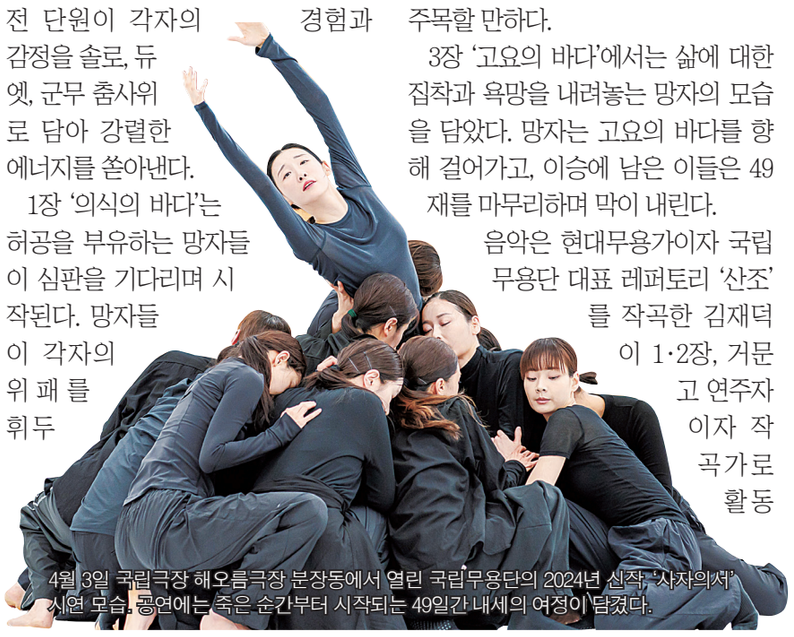
3장으로 구성된 '사자의 서'는 죽음 후 망자가 겪는 49일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국립무용단 50여 명 전 단원이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솔로, 듀엣, 군무 춤사위로 담아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낸다.

1장 '의식의 바다'는 허공을 부유하는 망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며 시작된다. 망자들이 각자의 위패를 휘두르며 만든 소리와 살아있는 자들의 통곡에 맞춰 불안감과 황망함을 춤으로 표현한다.

2장 '상념의 바다'는 망자의 회상이 주를 이룬다. 소년기의 천진난만한 장면, 청년기의 사랑과 이별, 장년기의 결혼 등이 파노라마처럼 무대에서 펼쳐진다. 폭풍같이 몰아치는 일상에서 느낀 기쁨과 슬픔, 회한과 체념 등을 춤으로 표현한다. 장례 절차 중 관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다지는 회다지 모습을 18명의 군무로 재해석한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3장 '고요의 바다'에서는 삶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망자의 모습을 담았다. 망자는 고요의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이승에 남은 이들은 49재를 마무리하며 막이 내린다.

음악은 현대무용가이자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산조'를 작곡한 김재덕이 1·2장, 거문고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하는 황진아가 3장을 맡았다. 망자의 애절함과 사후세계의 신비함을 담은 음악으로 작품의 몰입을 끌어올리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월 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분장동에서 열린 국립무용단의 2024년 신작 '사자의 서' 시연 모습. 공연에는 죽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49일간 내세의 여정이 담겼다.

황진아 작곡가는 "지난해 여름부터 작품을 논의했는데 '죽음'이라는 주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에 감정선을 잡는데 심적으로 괴로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죽음과 삶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 음악들이 어우러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대는 제31회 이해랑연극상을 받은 이태섭 무대디자이너가 맡았다. 무대 바닥부터 양쪽 벽까지 20미터에 달하는 삼면이 백색으로 채워지며, 장면에 따라 조각조각 나뉘고 회전하는 무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공간이 연출될 계획이다.

김종덕 감독은 "죽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고 특히 49재나 3년상 등 이승과 저승을 분리하지 않는 한국 전통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일 것"이라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 참조. 02-2280-4114

열암곡 부처님께 전하는 '뮤직비디오'

퓨전국악밴드 '경성구락부' 남산방아타령 선보여


남산방아타령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염원을 담은 뮤직비디오 '남산방아타령'이 공개됐다. 남산방아타령은 퓨전국악밴드 '경성구락부'가 경주 남산 순례의 감동과 소망을 담아 노래한 작품이다. 남산방아타령은 경기민요인 '자진방아타령'의 일부(4~5월 부분)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염원의 내용으로 개사한 것이다. 이는 샌드아트 '미로수의 꿈'에 이은 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세우다'의 두 번째 미디어 콘텐츠다.

"사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러 기림사 아가리 범실 잉어등에 등대줄이 떴다. 오월이라 단오일 경주 남산 열암곡에 많은 사람 모두 모여 누워 계신 마애불상 일심으로 세우려니 에-여럿히 한 맘 먹고 얼씨구 지화자 좋다 에라디여."

– 남산방아타령 중에서

경성구락부는 민요를 기반으로 현대음악을 융합한 뉴웨이브 국악을 선보이는 청년 퓨전국악밴드다. 소리꾼인 양진수, 손수빈 등 경성구락부 멤버는 지난해 5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경주 기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지를 순례했다. 이때 느낀 감동과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모셔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기림사와 남산 열암곡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비디오는 총 5분 7초 분량으로, 열암곡 마애부처님 관련 부분은 '쇼츠' 영상으로 편집돼 함께 소개됐다. 영상은 조계종 홍보국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윤호섭 기자

명주사고판화박물관, 中 고판화 아카이브 작업

中 국가급 인출 장인 내한
다색판화 100여 점 인출


고판화박물관에서 다색호랑이판화를 인출하고 있는 마시친 중국 국가급 년화 전승인.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30년 동안 수집해 온 전세계 다양한 고판화 작품 가운데 중국 목판의 아카이브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작업은 중국 국가지정무형문화재급 년화 전승인 마시친 씨와 그의 제자 성급 년화 전승인 쉬샤오이 씨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을 찾으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작업은 고판화박물관 소장 중국 년화 목판 1000여 점 가운데 다색 목판을 중심으로 100여 점을 인출, 세상에 다시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년화 다색판화는 한국과 일본의 칼라 판화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판화박물관은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등 목판 2500여 점의 아카이브 작업을 사진과 인출 장인들의 판화 인출 본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손색없을 작품이라는 평가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한국 판화는 주로 흑백판화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색판화를 인출할 수 있는 장인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위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이뤄진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를 통해 중국, 일본의 다색판화 전문가를 초청, 다색판화 인출 시연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으로 인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8~19세기 청나라 작품 100여 점의 중국 년화 작품을 다색으로 인출하기 위해 2명의 중국 국가급, 성급 전승인을 초빙해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아카이브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다색 판화작품은 내년 11월 중국 북경시 문물국 소속 베이징옌산(北京燕山)출판사에서 발간되는 8권의 전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구슬주머니, 불교무용대전 참가자 공모

4월 12일까지 개인 및 단체 접수
6월 본선…7월 6일 수상작 선정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가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IBDF) 참가자를 공모한다.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무용예술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행사다.

참가분야는 전통과 창작으로 구분되며 불법승을 소재로 한 무용 작품이라면 장르 및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전체 작품시간은 단독공연(단체)일 경우 50분 이상, 합동공연일 경우 개인(솔로)은 10분 이상, 단체(듀엣 이상)는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불교무용대전 참가신청서 1부와 공연계획서, 출연자와 스텝 명단 1부, 작품사진, 프로필 사진, 작품 영상자료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구슬주머니 홈페이지(https://beadspouch.modoo.at)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buddhistdance@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영상 및 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는 6월 7일~30일 서울 성균소극장에서 본선을 진행한다. 본선 진출작에는 극장 대관 및 기술 지원,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지원, 매체 홍보 지원 등이 제공된다.

결선과 시상식은 7월 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사)한국춤예술센터장상, (사)한국소극장협회장상 등이 주어진다. 02-3675-3333

임은호 기자

